



**장철봉**

미국 Rose Slauson Animal Hospital 원장,  
국제수의침구사협회 공인수의침구사  
cbchangdvm@gmail.com

## 개에게도 침을 놓나요?

지난 주 침치료를 받은 개는 중키의 테리어 혼합종이다. 나이가 13살(사람나이로는 75세)인 이 개는 흉추와 요추 사이에 있는디스크 탈출로 인해 뒷다리 마비증세가 있었고 나의 침치료를 받기전엔 몇주간 전혀 걷지를 못했다.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권유 받았는데, 노인인 백인 주인은 “개의 나이가 많아 수술의 부작용이 걱정스럽고 또 수술비가비싸 수술을 해줄 수 없다”면서 대신 침치료를 원했다.

1차 침치료를 마치고 병원문을 나설 때에도 증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주인이 개를 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3일 후 2차 침치료를 받고자 병원문을 들어설 때 그 개는 뒤뚱거리며 걸어서 들어 오는 것이었다.

병원에 들어서자 개 주인은 나를 치켜 세워주며 그동안의 경위를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1차 침치료를 받는 날부터 복용시켜 왔던진통제와 항염제를 일체 중단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개가 일어나더니 스스로 집밖으로 걸어 나가 대소변을 보더라는 것이었다.

주인의 흥분과는 다르게, 솔직히 필자의 속 마음은 덤덤했다. 증세가 비슷한 적잖은 디스크 환자 개를 침으로 치료했지만 일부만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침은 확실한 치료술이 아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던 차였다.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침으로 성공한 확률이 수술없이 약(한약이 아님)으로 치료가 된 확률과 거의 비슷하든지 아니면 조금 모잘랐다. 이 디스크 환자 개의 경우 약복용을 중단하고 침치료를 받은 다음날 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복용시켰던 약이 치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한의학, 중국에서는 중의학이라고 하는 동의학은 현대의학을 공부한 대부분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회의적이고원시적인 치료법으로 여기고 있다. 왜냐면 의학은 과학을 바탕으로 설정한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한의학은 전혀 그렇지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의사들도 ‘신비의 침술’이라면서 한의학의 약점을 포장해야만 했다.

한국이나 중국의 선인들은 생산가치가 없는 개나 고양이를 천시하였다. 그들은 한의학으로 사람을 수천년 치료하였지만 개나 고양이를치료해 줄 생각을 갖지 못했다. 다만 생산가치가 있는 소나 말이 병들면, 한의학의 이론적 배경없이 자침하는 비공인 수의한의사, 일컬어 ‘소침쟁이’ 는 있었다.

근세기 들어 현대수의학을 공부한 미국과 유럽의 의사들이 인체 침구학을 공부한 후 동물에 침구학을 응용하기 시작했다. 필자도 ‘국제공인 수의침구 전문의’로 타 수의사로 부터 동물환자를 위탁받아 침으로 치료하곤 했다. 부친은 수의사이고 한의사이셨기에나는 어릴 때부터 한의학 속에서 자랐다. 지난 20여년간 병원에서 한의로 동물을 치료해본 경험을 배경으로 ‘수의침구학’ 와 ‘수의한방료법’ 이란 책을 저술했다.

몇년 전 한국에서 수의사들과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의한의학’을 특강한 적이 여러차례 있었다. 당시 강의실에서 어떤 수의대교수는 ‘한방의 종주국인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공인자격증을 갖춘 수의한의사’ 라고 나를 소개했다. 들은 칭송(?)만큼 나도한의학을 탁월한 의학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야 ‘공인 한인 수의한의사 1호’ 로써 자긍심도 있을텐데, 꿀먹은 벼어리인양 나는그러지 못했다. 한의학의 효능을 아직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